

#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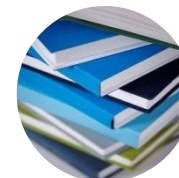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 contents



## 이주의 초점

1. K-콘텐츠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배 증가



## 관세·무역 NEWS

2. 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운영지침 시행

3. 무역위, 美·프랑스產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4. 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5. 인도產 밀 수출금지, 韓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6. 엔저, 韓의 대외 수출에 영향 제한적

7. 美·中 패권 경쟁 속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 개정법령

8.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9.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민원사례

10. 제3국 경유 시 한·베트남 FTA C/O 적용 여부 관련 질의

11. 핸드백의 품목분류 관련 질의



## 기타 관세소식

12.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 더 크게 오르자 교역조건 역대 최악

13.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9월 현실로?

Cover

## K-콘텐츠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배 증가 - I

新수출 시장 위해 소비재 수출 확대 필요 ... K-콘텐츠 활용해 시장 개척 해야

이주의  
초점

최근 OTT 등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발달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적으로 비대면 콘텐츠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일례로 지난해 9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은 개봉 6일만에 전 세계 1위에 올랐고, 이후 52일간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해 넷플릭스 사상 최장 1위를 기록했다.

개정  
법령

이와 관련해 게임, 영화, 음악 등 K-콘텐츠의 수출이 늘어날 때 화장품, 가공식품과 같은 소비재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5월 2일 발간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의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 또한 1억 8,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

이는 소비재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 K-콘텐츠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의 1.8배 만큼 소비재 수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K-콘텐츠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배 증가 - II

올해 세계 콘텐츠 시장, 전년대비 6.7% 증가한 2조 6,000억 달러 전망

세계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 상영 및 음악 공연 등 대면서비스가 중단되며 2020년 전년대비 3.7% 감소하는 등 역성장을 보였지만,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올해 전년대비 6.7% 증가한 2조 6,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특히 영화와 애니메이션 시장은 OTT 등 ICT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하며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 2021년 각각 전년대비 93.9%, 93.3% 성장하며 빠르게 회복됐다.

비대면 서비스 성격이 강한 게임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모바일 게임 성장세가 더 높아지고, 메타버스 등 MZ 세대의 가상공간 활동도 늘어나며 2020년 다른 콘텐츠들과 달리 14.9% 성장했으며 2025년까지 평균 6%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게임, 음악, 영화, 만화 등은 전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의 비중은 10% 내외로 크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서비스 전환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보였다.

이주의  
초점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 K-콘텐츠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배 증가 - III

이주의  
초점**韓 콘텐츠 수출, 2016년 이후 연평균 18.7% 성장**

콘텐츠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125억 달러의 약 2.3% 규모로 2006년 이후 약 9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력 수출 품목과 비교했을 때 가전, 섬유 수출액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관세·무역  
NEWS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매출액은 128조 3,000억원으로 2019년 126조 6,00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연평균 4.0%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수출액은 119억 2,000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000만 달러 대비 16.3% 증가했고, 2016년 이후 연평균 18.7% 성장하는 등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  
법령

분야별 수출 비중은 게임 수출이 2020년 기준 81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68.7%를 차지해 콘텐츠 산업 내 게임 분야 수출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

민원  
사례

방송과 영화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각각 28.5%, 43.0%로 증가했다.

기타  
관세소식

음악산업은 코로나19로 공연 관련 수출액이 줄어들어 2020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0.1% 감소했으며, 만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북미, 일본, 중국 등에서 크게 성장해 2020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36.3% 증가했다.

Cover

## K-콘텐츠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배 증가 - IV

이주의  
초점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000만 달러 증가 견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6개 지역에 대한 K-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액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회귀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가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이 1억 8,000만 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무역창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무역  
NEWS

지역적으로는 중화권보다 비중화권에서, 분야별로는 게임보다 한류 성격이 강한 음악·방송·영화 등의 소비재 수출 견인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개정  
법령

자세히 살펴보면 비중화권에서는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가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2억 2,900만 달러 증가했다. 게임 수출은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 1억 3,800만 달러를, 비게임 분야 수출은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 4억 5,600만 달러가 증가했다.

비중화권에서 음악·방송·영화 등과 같은 비게임 분야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은 5억 2,700만 달러 증가가 견인돼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

K-콘텐츠 가운데 음악 수출이 소비재 쏠 분야에 걸쳐 견인 효과가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재 중 화장품, 가공식품이 K-콘텐츠 수출 견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K-콘텐츠 수출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배 증가 - V

이주의  
초점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재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취향이 개입되는 소비재의 경우 수요를 창출하는 특이 요인이 있으면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10% 내외인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문화와 취향이 중요한 소비재 영역에서 K-콘텐츠를 활용해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운영지침 시행 - I

이달 18일부터 시행 ... 물류거점 활용하면서 RCEP 관세혜택까지

이주의  
초점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운영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동일한 FTA를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개정  
법령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産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민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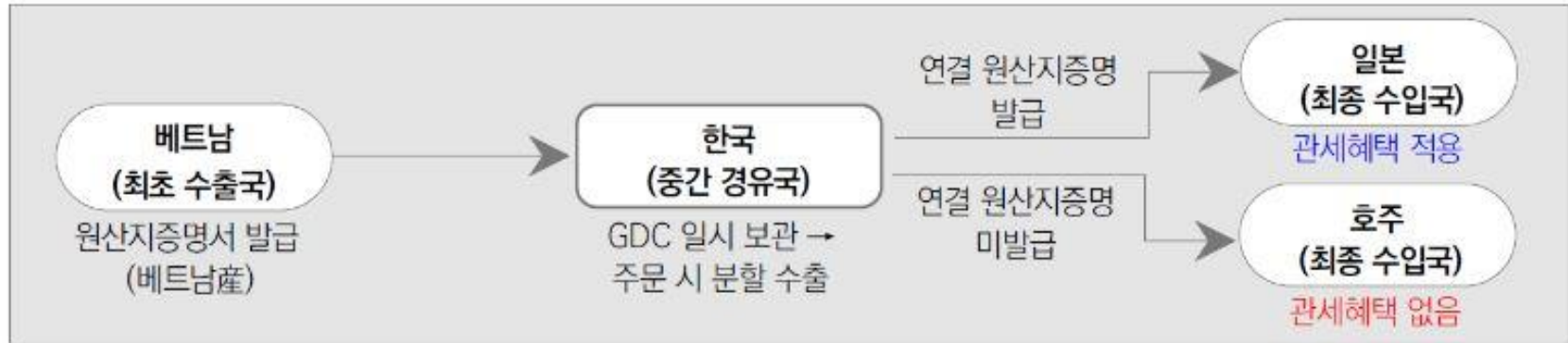
그러나 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했고,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기타  
관세소식



●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예시 ●



●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 ●

-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해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출처 - CUSTRA

Cover

## 무역위, 美·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프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 I

이주의  
초점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조사개시

무역위원회가 미국 및 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무역위는 5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프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프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프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00억원대에 달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

무역위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덤프방지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Cover

## 무역위, 美·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프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 II

이주의  
초점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는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일 주식회사 로닉(신청인)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피신청인)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분쇄조리기를 피신청인 A 및 B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 Cover 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 I

제재대상에 獨·英·美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 포함

이주의  
초점

러시아정부의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에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가 포함됐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됐다. 이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무역  
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러시아정부가 내놓은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 정부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5월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개정  
법령

대상에는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가 포함됐으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제재대상 기업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원  
사례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5월 13일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을 주재로 '산업자원안보전담팀(T/F)'을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천연가스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의존도는 약 6% 수준(2021년 기준)으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의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 II

이주의  
초점

이어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올 연말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철 스크랩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관세·무역  
NEWS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KOTRA·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 ●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

- (적용기간) 2022.5.3(화) 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제재대상)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韓 기업 無)
  - (조치내용) ① 러 연방, ② 러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③ 기타 국가기관, ④ 지방정부, ⑤ 러 연방 관할하 조직 ? 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 금지
    - 거래금지 : 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금지,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 거래 수행 금지
    - 수출금지 : 제재 대상자에게 러시아産 제품 ? 원자재\* 수출 금지
- \*러시아연방에서 생산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 ? 원자재

## Cover 인도産 밀 수출금지, 韓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 I

인도産 밀 수출금지, 韓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이주의  
초점

인도정부의 밀 수출 중단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세·무역  
NEWS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밀 국제가격 상승, 올해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한 밀 작황 부진이 예상돼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개정  
법령

대외무역총국은 밀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도와 이웃 국가, 기타 취약국의 식량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인도정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이웃국가와 기타 취약국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13일 이전 취소불능 신용장(ICLC)이 개설됐거나 인도 중앙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 요청 등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밀 수출을 허가한다.

민원  
사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인도의 밀 수출금지가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화 시 국제 밀 가격 상승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4% 수준이다.

기타  
관세소식



## Cover 인도産 밀 수출금지, 韓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 II

이주의  
초점

우리나라의 경우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2020년 기준 연간 334만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입찰 가격에 따라 매년 수입국, 수입물량이 유동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의 경우 8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10월 말), 사료용 밀은 10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2023년 1월 말)까지 사용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농식품부는 전 세계 밀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되지만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정  
법령

이러 정부는 국제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3월 사료·식품업체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했으며, 지난달에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을 증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국내 소비자,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추경안에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식품외식 종합자금 확대 등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민원  
사례

농식품부는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국제곡물 시장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단기 대책을 비롯해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 Cover 엔저, 韓의 대외 수출에 영향 제한적 - I

韓·日 수출 경합 감소 및 원화 동반 약세로 수출 성장세 지속 전망

이주의  
초점

최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월 6일 발표한 '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韓·日 수출 경합 감소, 원화 동반 약세 등으로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계시장 수출 경합도는 2015년 0.487에서 지난해 0.458로 최근 6년간 0.029 감소했다.

참고로 수출 경합도는 두 국가 간 수출구조의 유사 정도를 측정해 경합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경합도 하락은 양국 간 수출 경합 품목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 경합지수도 미국(0.083), 중국(0.075), ASEAN(0.016) 순으로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경합도가 세계, 미국, 중국, ASEAN 시장 모두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 엔저, 韓의 대외 수출에 영향 제한적 - II

또한 보고서는 엔화 약세가 본격화된 시점에 원화도 함께 절하되며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이주의  
초점

올해 4월 엔/달러 환율이 지난해 1월 대비 21.6% 상승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도 12.3% 상승하며 일본의 수출단가 인하 효과를 일부 완화했다.

환율, 수출단가, 세계 수요 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수출영향 실증분석에서도 엔화 환율은 수출물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무역  
NEWS

실제 엔화 약세가 시작된 지난해 초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례로 올 4월 수출은 576억 달러(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증가했다.

개정  
법령

무역협회 조의윤 수석연구원은 “우리 수출상품이 차별화되고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엔저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경쟁력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美·中 패권 경쟁 속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 I

IPEF를 통한 對中 견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이주의  
초점

韓·美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처음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방한 기간 중 21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2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현지 기업의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對中 견제성향의 경제안보 확립으로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CPTPP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는 RCEP, CPTPP를 통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통상리포트 5월호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 세계경제(GDP)의 44.8%(38조 1,570억 달러), 무역의 35.5%(12조 701 달러), 인구의 3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태 국가들의 전체 무역에서 역내 국가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2%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74%를 상회해 인·태지역이 핵심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 Cover 美·中 패권 경쟁 속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 II

이주의  
초점

중국 무역 내 인·태 지역의 비중은 2013년 45.2%에서 2021년 49.5%까지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이어오며 인·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최근 무역갈등 상황 속 경제패권을 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인·태 전략(Indo 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체계를 마련했다.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태지역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다.

IPEF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또한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되며 분야별 협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약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개국은 참여가 확실시 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9개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자국 내 사정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 美·中 패권 경쟁 속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 III

이주의  
초점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은 고려 대상에 없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만과 인도의 경우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으나 중국의 입장 등 대내외 역학구도로 인해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인·태를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 설정했다.

관세·무역  
NEWS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Indo Pacific)'으로 확장되고 現 바이든 행정부까지 축적된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등 지역내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임기 후반 QUAD+와 EPN(경제적번영 네트워크)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인·태지역으로의 전략적 확장과 경제 협력은 집권당과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정  
법령

따라서 인·태의 경제·무역·투자 규모, 지경학적 중요성, 미국의 전략적 접근 체계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IPEF를 비롯한 미국의 對인·태 경제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  
사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인·태 보고서가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좋지 않은 의도"라고 비난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IPEF 가입에 대해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발로 간주한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해 참여한 대립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6호, 2022-05-18,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무역  
NEWS

□ 관세법 법률 용어 반영

□ 기타 법률 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 여행자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을 관세법 규정에 맞게 개정

□ 변화된 여행자 휴대품 통관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 신설

개정  
법령

-관세법상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고시의 '예치물품 장치기간' 규정에는 기한이 없어 관세법에 맞게 개선(제17조제3항)

\* 관세법 제170조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내 + 3개월(연장) 범위내

\* 예치물품의 장치기간: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고시제17조3항)

□ 현재 운용 중인 업무절차 및 통관제도 정비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법제처



Cover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15]

이주의  
초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2] 목록통관제도 개선

[3]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4] 그 밖에 업무흐름에 따라 조항을 이동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리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Cover

## 제3국 경유 시 한·베트남 FTA C/O 적용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물품이 베트남 다낭항에서 선적 후 대만(제3국) 카오슝항에서 환적돼 인천항으로 운송되는데, 이때 제3국인 대만세관의 비가공증명서는 없고, 다만 최초 출항부터 경유지 및 도착항(인천)까지의 날짜/시간/분 단위 Cargo Tracking History를 첨부했습니다. B/L에 기재된 Container No.도 변동이 없는 경우 한·베트남 FTA C/O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무역  
NEWS

□ (답변)

∴ '한·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3.23조 직접 운송의 이행'에 따라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중간 경유국을 통해 운송이 이뤄지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돼야 합니다.

개정  
법령

B/L에서 통과선하증권의 내용, 즉 수출당사국부터 수입당사국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 트래킹 히스토리로 직접운송이 가능한지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핸드백의 품목분류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답변)

관세·무역  
NEWS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개정  
법령

소호 제4202.2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이라면 제4202.22-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 더 크게 오르자 교역조건 역대 최악

이주의  
초점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수입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1년 전보다 약 20% 높아졌다.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 상승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교역조건 지표는 통계 작성 이래 약 2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168.63·2015년 100기준)는 1년 전보다 19.4% 올랐다.

2020년 12월(2.9%) 이후 17개월 연속 상승이지만, 오름폭(19.4%)은 3월(28.3%)보다 줄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 수입금액지수 상승률이 69.6%에 이르렀고, 공산품 중 석탄·석유제품도 42.5%나 높아졌다. 화학제품(15.2%), 컴퓨터·전자·광학기기(11.9%) 등도 올랐다.'

하지만 수입물량지수(121.33)는 3월보다 5.2% 떨어졌다. 주로 기계·장비(-21.2%), 1차금속제품(-17.7%), 석탄·석유제품(-11.8%)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4월 수출금액지수(140.75)와 수출물량지수(120.88)도 1년 전보다 각 14.0%, 1.9% 올랐다. 각 18개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관세·무역  
NEWS

개별 품목 중에서는 석탄·석유제품(71.0%), 1차 금속 제품(20.9%)의 수출금액이 많이 늘었다. 수출물량지수 기준으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9%)가 호조를 보였지만 석탄·석유제품(-7.4%), 섬유·가죽제품(-6.7%) 등은 부진했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해당 시점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2015년)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지표이고, 수출입물량지수는 이렇게 산출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다만 수입액(통관기준) 가운데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은 빠져있다. 이 품목들의 경우 가격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수입물가지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

순상품교역조건지수(83.78)는 1년 전보다 11.1% 떨어져 13개월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8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수입 가격(+25.9%)이 수출 가격(+11.9%)보다 더 크게 오른 탓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의 경우 수출물량지수(+1.9%)가 올랐지만, 순상품교역지수(-11.1%)가 내려 결과적으로 1년 전보다 9.4% 떨어졌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연합뉴스

Cover

##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9월 현실로?

이주의  
초점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연내 한·미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9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될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까지 세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7월 빅스텝을 단행하면 단숨에 2.0%로 갈아진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달초 1.0%로 올라섰고, 6·7·9·11·12월 5차례 결정할 기회가 있다.

관세·무역  
NEWS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25~2.5% 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전날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고 다음달에는 금통위가 없다. 올해 7·8·10·11월 금통위 4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시 빅스텝을 단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빠르면 한은 금통위가 없는 9월, 금리 역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총재는 전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를 넘는 아주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아직까지는 더 견고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개정  
법령

콜금리 목표제를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19년 10월 3차례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원달러환율은 1260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민원  
사례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차가 역전되거나 자본유출이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환율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또 현재 우리 상황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가 더 올라갈 때 해외로 늘어날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서 저희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2년 전쯤에 비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35%였다가 지금은 25~26% 정도로 낮아져 있고, 채권 투자도 소폭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

기타  
관세소식

#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등

